



Market Index / 16일

코스피지수 ▲ 2480.24 +0.89	코스닥지수 ▲ 816.75 +2.22	유가(WTI, 달러) ▲ 71.11 +1.07	환율(원) 1USD 100¥ 1361.41 1002.55	살때 1314.59 팔때 968.07	1EUR 201.46	살때 1486.75 팔때 1428.75	1CNY 182.28
--------------------------	-------------------------	------------------------------	---------------------------------------	-------------------------	----------------	--------------------------	----------------



초여름 날씨의 이호해수욕장 풍경. 화창한 날씨를 보인 16일 제주 이호해수욕장을 찾은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해변을 거닐면서 청정 제주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강희민기자

제주농협, 농업·농촌 활성화 추진 지자체 협력사업에 상반기 16억원 지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농업기반 시설 구축과 영농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23건의 지역농업발전사업을 발굴,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한 올해 상반기 지역 농업발전사업의 총 사업비는 147억원으로 예산 부담은 제주도 80억원, 농협중앙회 16억원, 농·축협 38억원, 농업인 자부담 13억원이다.

지원사업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농작업 대행 농기계 등 지원사업 ▷2023년도 귀농·귀촌 교육과 청년농업인 교육 사업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국민수확단 영농인력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심화교육 등이다.

제주농협은 작년도 42개 지자체 협력사업을 발굴해 2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21억원을 지원해 총 사업비 170억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행여 나도 떼일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증가

제주서 올 4월까지 못돌려받은 보증사고 22건·41억
작년 상반기 9건·12억원 대비 금액 3배 이상 많아
불안감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2016년 7→작년 845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1년치 임대차료를 선지급하는 ‘연세’ 비중이 훨씬 높은 제주에서는 집단사기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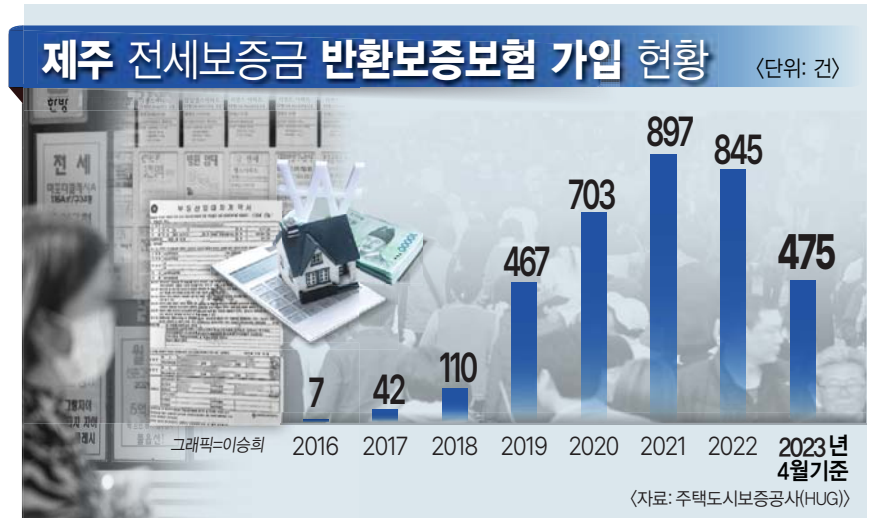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확인한 결과 올해 4월까지 도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금액(보증 실적)은 475건·91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7건·13억3750만원이던 가입금액이 ▷2017년 42건·76억8125만원 ▷2018년 110건·195억1650만원 ▷2019년 467건·665억1300만원 ▷2020년 703건·1131억6980만원 ▷2021년 897건·1603억원 ▷2022년 845건·158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HUG에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계약 종료나 해지 후 1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기간 중 집에 경매·공매에 넘어가면 보증기관인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전세로 연립주택에 사는 한 임차인은 “집없는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최근 다른 지역에서 집단 전세사기 사례를 자주 접하다 보니 그동안은 생각지 않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고민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것은 보증금을 제때 못돌려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크다.



올해 4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2건·41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상반기 보증사고(9건·12억원)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

월별 전세보증금 사고는 ▷1월 9건·14억4000만원 ▷2월 4건·7억9500만원 ▷3월 3건·7억7000만원 ▷4월 6건·11억3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각 4건, 18건으로 나타

났다.
보증사고 건수·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보증사고율(해당 시점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보증금액 대비 보증사고 발생 금액 비율)인데 제주는 사고비율도 전국에 견줘 높은 수준이다. 1월에는 사고율이 13.5%로 전국평균(5.8%)을 웃돌며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2월(4.0%), 3월(4.9%)에는 각각 6번째, 5번째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4월에는 사고율이 8.4%로 전국에서 인천(15.5%)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부동산소비심리지수 4월 소폭 상승

95.2로 전월보다 2.6p ↑... 8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
일반가구 주택구입계획은 84.6%가 '1년 이후' 응답

제주지역의 4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비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개월 연속 기준치(100)에는 못미치고 있다. 또 주택 구입 계획과 관련해서 '12개월 이후'라는 응답이 80%를 넘어 시장 전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4월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2로 전월 대비 2.6포인트(p) 상승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대구(90.9), 부산(93.2), 인천(93.8)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작년 9월 이후 8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152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와 중개업

소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된다. 하강(95 미만), 상승(115 이상) 등 3개 국면으로 분류하는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도내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94.2→97.2),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90.4→96.5)는 3월보다 상승했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98.1→97.8)는 소폭 떨어졌다.

토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3월 77.7에서 4월 77.1로 소폭 떨어졌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대로 가장 낮았다. 제주는 작년 10월 이후 줄곧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전월 대비 4월 거주주택의 가격 수준을 물었더니 76.7%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소 낮아짐(11.8%), 다소 높아짐(5.0%), 매우 낮아짐(1.3%) 등으로 나타났다.

4월 주택구입 계획에 대해서는 '12개월 이후'라는 응답이 8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개월 이내는 4.7%, 4~6개월 사이와 7~9개월 사이는 각각 4.5%, 10~12개월 사이는 1.7%였다.

문미숙기자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겹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 선호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겹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론: 향량 및 높기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견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늘, 팔삭, 세이불, 금굴, 당유자, 아파나스, 미니론,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문의: 010-92-320-9)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협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문의: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35)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전뿌리 형성과 뿌리손상 방지 ▶ 미수익기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식 적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공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갈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원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 사라향 / 제라론 / 미니향

푸른지개농협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푸른지개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만감류

- 원터프린스 1년생~2년생
- 카라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한라봉 1년생
- 미니향 3년생
- 제라론 3년생
- 하갈(아파나스) 1~2년생
- 황금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탐나는봉 1년생
- 레몬 4년생
- 미니론 1년생

※ 극조생 & 조생

- 공천조생 1~4년생
- 하례조생 2년생
- 유라조생 1~2년생
- 오하라베니와세 1~2년생
- 히노야카리 4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하례조생, 원터프린스, 레드향, 하갈, 천혜향, 오하라베니, 제라론, 미니론, 황금향, 한라봉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325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